

전남

장성호·금곡영화마을 민자개발 탄력

장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장성호 관광지와 금곡영화마을(시진) 주변의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장성호관광지, 금곡영화마을에 대한 대규모 민자개발사업 대상자로 (주)티에스지유니온과 노량진역사(주)가 선정됐다.

장성군은 지난 9월 민자투자계획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공모하고 공모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의 타당성 검토와 민자투자사업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자 선정에 따라 (주)티에스지유니온, 노량진역사(주)는 12월부터 장성군과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특수목적법인 및 자산관리회사 등을 설립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장성호관광지와 금곡영화마을 일원은 2013년까지 숙박시설, 휴양문화

郡-티에스지유니온·노량진역사 협약체결

내년부터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설, 공공편익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 계획이다.

이에 장성군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각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은 당초 개발계획을 민간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일정부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를 감면하고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40종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전남도청 서계필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청 장성군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맥전자, 송원엘리스(주), 세보금속스텐(주), (주)한일생활과학 등 4개 업체와 232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전자부품 등 친환경 신기술을 보유한 이들 업체의 투자유치로 19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자개발사업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의 어려움이 많았던 장성호관광지와 금곡영화마을 등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의료·휴양·관광·문화가 복합된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향긋한 돌미나리 수확 한창

기를 얻고 있다.

25일 광산구 동곡동 용봉 들녘에서 주민들이 돌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동곡 돌미나리는 향이 독특하고 줄기 속이 탄탄해 미식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산구 제공>

국화 협력단, 수출 전인차 역할 '톡톡'

생산·유통 컨설팅... 전남 작년 100억 판매 기여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원하는 '국화 산·학·연 협력단'(이하 국화 협력단)이 전남지역 국화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5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화 협력단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전남지역의 국화 판매액은 지난해 100억여원을 기록했다. 설립 초기인 지난 2005년 76억원에 비해 32%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국화 협력단'은 지난 2004년 전남 지역 국화산업의 특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전남도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현재 협력단에는 광주·전남지역의 각 대학 교수진과 생산농가, 전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전문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수출담당, 유통 및 수출업체 등 각계 19명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화협력단은 국화 브랜드의 수출과 유통관리 및 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재배 및 생산에서부터 유통, 마케팅, 브랜드화, 수출까지의 모든 과

절과 농가 또는 농업 법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정보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국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을 위해 '국화 유통사업단'을 설립, 1단계 사업으로 전남지역 국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컨설팅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전남산 국화 공동브랜드 'J-MUM'을 개발해 특허청에 등록, 국내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하는 국화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국화에 사용하고 있다.

/송기승기자 song@

해군 제3함대사령부 '아나바다' 바자회

환경도 살리고 이웃도 돕고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임종철 소장)는 재활용품 바자회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밭호 추 화단조성, 수목이식 통한 공원 조성 등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거친 파도를 헤쳐며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만촌 함(장장 오계록 대령) 함상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바자

회는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군특성상 잦은 이사과정에서 많은 생활물품들이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사실에서 착안을 얻은 양만촌 함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대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개인에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아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다. 이렇게 모인 물품들로 함 대원뿐만 아니라 인근 정박함정과 육상부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경매형식의 '아나바

다' 바자회를 최근 개최했다.

양만촌함은 이번 바자회에서 함정 대원들이 준비한 207점의 품목 가운데 162점의 물품이 판매, 130만9천500원의 수익금을 모아 이중 5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하고 나머지는 가정 형편이 불우한 전우 2명에게 전달했다.

오계록 양만촌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함 대원들의 전우애를 고취하고 모두에게 깊은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아나바다'운동을 추진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재활용에 환경보전과 부대 함마를 고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서해해경, 목포 대불항서

폭탄테러 모의 해상훈련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25일 목포 대불항앞 해상에서 '선박·해양시설 폭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해군, 육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날 훈련은 해양경찰 함정과 선박 11척, 고속보트 2척, 헬기 1대, 특공대 12명이 동원됐다.

훈련은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무장 테러범들이 조업중인 어선을 탈취해 선원들을 인질로 삼고 기관실에 폭발물을 설치, 대불항 정유소 방향으로 전속 항해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특공대와 함공단, 함정 등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모의 테러 선박의 진행 방향 전·후방에서 차단기동과 저지작전을 벌였다.

이와 모의 테러 선박에 정선 명령을 내리고 헬기와 고속 경비정들이 위협기동에 나서 강제정선을 명령하며 협상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을시 특공대를 투입, 강제 진입에 나선다.

진행 후 서해청 특공대 선술실에서 어선 기관실에 설치된 폭발물을 해제하고 부상자와 테러범의 신병을 합동 조사반에 인계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독거노인 위한 작은 손길 '감동'

나주 문평파출소, 생필품 지원·주거환경 개선

나주경찰서 문평파출소(소장 공경현)가 주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대민 봉사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문평파출소는 지난 24일 생활형편이 어려운 나주시 문평면 염모(여·84)씨와 김모(여·74)씨 집을

방문해 쌀 20kg 2포대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배해 살았게 바뀌는 등 '감동치안' 활동을 펼쳤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민들의 노인계층을 위해 크고 작은 손길을 지원한 것으로 지역민들이 느끼는 경찰관의 이미지 쇄신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문평파출소의 경우 고령의 지역민들이 건강검진 등 병원방문시 불편한 교통편을 감안, 순찰차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귀감으로 되고 있다.

공경현 소장은 "난방유 제공, 도배, 장판교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우리집 주치의는 '보건소'

해남군 3년째 취약계층 방문의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가 정말 많이 돼요" 암환자인 남편을 4년째 보살피고 있는 강태화(65·해남군 현산면)씨는 군 방문건강관리 팀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이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시작한 해남군 방문보건 사업은 기초 수급자 7천143가구를 대상으로 43개팀이 지역 담당자를 통해 가족 중심의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팀은 재가 암환자를 비롯해 중증환자, 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을 정기적으



로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 물리치료, 구강검진, 재가 암환자 영양 및 통증 관리 등의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군에서 실시하는 암환자관리 사업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군은 438명의 재가 암환자를 등 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 1만여 명에게 암 검진을 실시, 165명에게 의료비 1억8천만원원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암관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A large table containing public notice information for the National Public Auction (국민법률경매). It lists various items for sale, including land, buildings, and vehicles, with columns for location, item details, and bidding information. The table is organized into several sections for different types of auctions and locations.